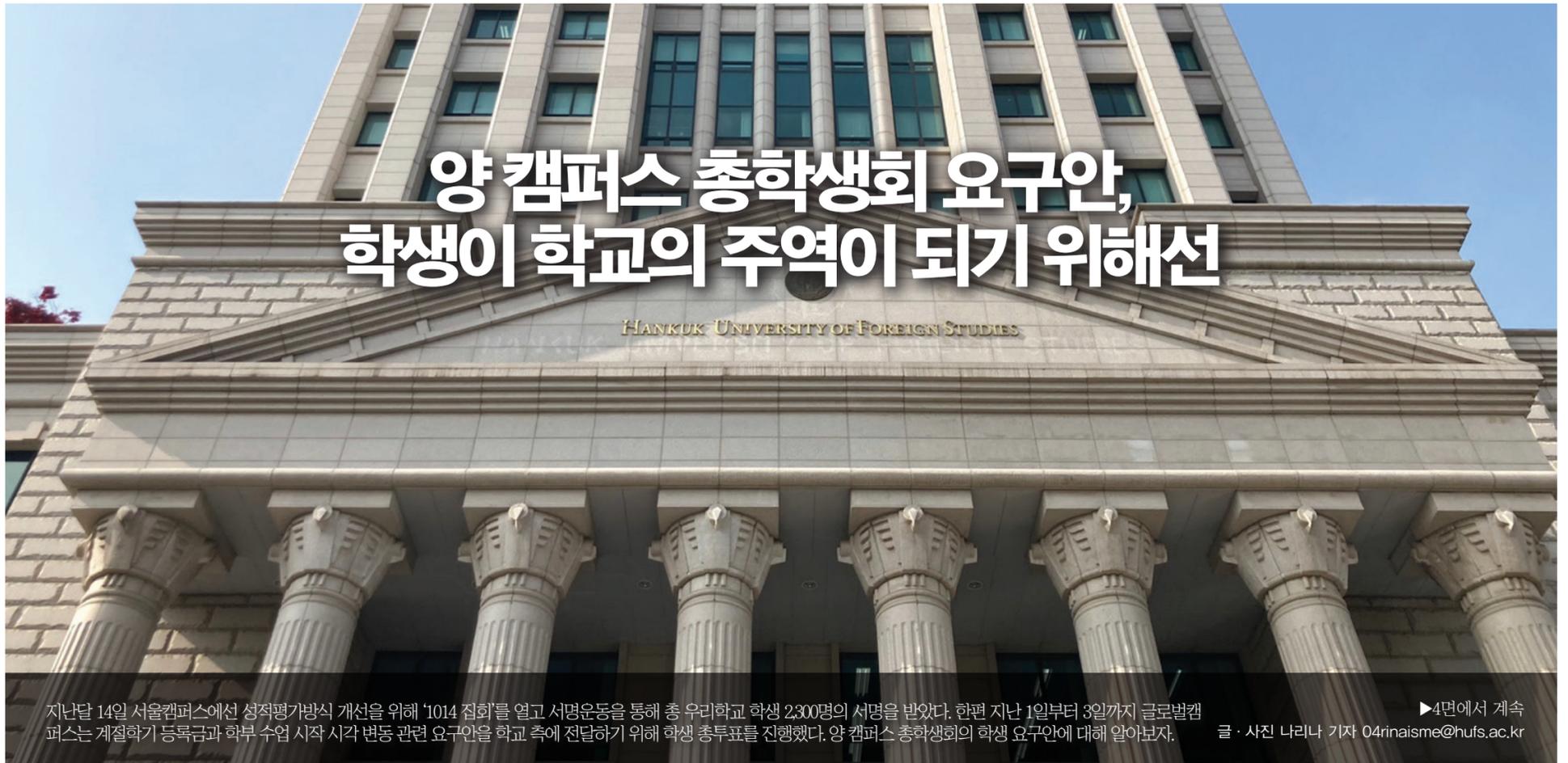


[기획] >> 3면
학내 와이파이 문제

[심층] >> 7면
교부금 개편안 논쟁

[사회] >> 8면
이태원 참사

[인물] >> 12면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을 만나다



양 캠퍼스 총학생회 요구안, 학생이 학교의 주역이 되기 위해선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지난달 14일 서울캠퍼스에서 성적평가방식 개선을 위해 '1014 집회'를 열고 서명운동을 통해 총 우리학교 학생 2,300명의 서명을 받았다. 한편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글로벌 캠퍼스는 계절학기 등록금과 학부 수업 시작 시각 변동 관련 요구안을 학교 측에 전달하기 위해 학생 총투표를 진행했다. 양 캠퍼스 총학생회의 학생 요구안에 대해 알아보자.

▶4면에서 계속
글 · 사진 나라나 기자 04rainisme@hufs.ac.kr

우리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제17회 인문주간 개최해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우리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산하 HK+사업단(이하 HK+사업단) 지역문화센터 톨레랑스(Tolerance)는 2022년 제17회 인문주간 행사를 진행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인문주간 행사는 매해 가을마다 전국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평소 접하기 힘든 인문학에 대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문학의 가치를 재고시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인문학 축제다. 이번 인문주간 행사는 '하나는 우리, 화합과 상생의 문화 공감이란 슬로건으로 실시됐다. 인문주간 행사 프로그램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의 △음식 맛보기 △음악 체험 △인문학 특강 △전통악기 공연으로 이뤄졌다.

제17회 인문주간에선 개막식을 시작으로 크게 △강연 및 강좌 △문화 체험 △인문 행사 공모전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강연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살펴보는 유라시아 문화대장정 △유라시아의 정세 알아보기 △인문학으로 접근하는 통일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한 인문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중앙아시아의 △문화 △여행 △통일 등에 대한 강좌가 진행되기도 했다. 문화 체험에선 중앙아시아의 △노래 △음식 △의복 △전통 악기 등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가 제공됐다. 이어 일상에서 찾은 화합의 순간과의

미를 주제로 사진과 함께 N행시 공모전을 개최했다. N행시 공모전에선 △대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이 선정됐고 행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에 시상식이 이뤄졌다. 행사에 참여한 주현우(사회·행정 22) 씨는 "우리학교에서 외국어를 전공하지 않아도 다른 나라에 대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는데 이번 인문주간 행사를 통해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중앙아시아 지역의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전했다. 이은경 HK+사업단 지역문화센터 톨레랑스 교수는 "인문주간 행사를 통해 우리학교 학생들의 생활 속에 인문학이 더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5월에 출범한 HK+사업단 지역문화센터 톨레랑스는 대학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학을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원준 기자 05wonjun@hufs.ac.kr

우리학교 국제통상학과, 제10회 홈커밍데이 개최해

지난달 28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제10회 국제통상학과(이하 국통) 홈커밍데이(Homecoming day) 행사가 개최됐다. 홈커밍데이는 각 학과마다 동문을 초청해 재학생이 진로와 삶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한 행사로 국통 이외에도 우리학교의 다양한 학과에서 비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이번 국통 홈커밍데이 행사는 제66대 국통 학생회 UNK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개회사 △감사 인사 영상 △축사 △헌정 영상 △발전기금 기탁식 △재학생 고민 상담 △저녁 만찬 △담금주 만들기 △노래 공연 및 장기자랑 △경품 추첨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이뤄졌다. 행사에선 권예은(상경·국통 20) 국통 학생회장(이하 권 회장)과 전영신(상경·무역 88) 씨가 사회를 맡았으며 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남수진 국통 학과장 교수(이하 남 교수) △기동호(상경·무역 78) 총동창회 회장(이하 기 회장) △김태식(상경·무역 66) 씨 △기봉환(상경·무역 64) 씨가 축사를 올

렸다. 남 교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행사가 3년 동안 진행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에선 국통의 전신인 무역학과 72학년 졸업생 △박찬형(상경·무역 72) 씨 △이윤수(상경·무역 72) 씨 △정원순(상경·무역 72) 씨(이하 정 씨) △조대우(상경·무역 72) 씨가 입학 50주년을 맞아 기부한 발전기금 1000만 원의 기탁식이 진행됐다. 정 씨는 "약소한 금액이지만 활발한 학과 활동을 통해 국통 후배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행사 기획에 참여한 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입학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큰 행사를 기획하게 돼 준비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선배들의 도움 덕분에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양진하 기자 04jinha@hufs.ac.kr

10·29 이태원 참사 사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학교, 2022 아세안 청년 커리어 멘토십 개최해

지난달 29일 우리학교 동남아연구소는 우리학교 서울 캠퍼스 오바마홀 국제회의실에서 한-아세안센터와 공동으로 '2022 아세안 청년 커리어 멘토십(ASEAN Youth Career Mentorship Program)'을 개최했다. 한-아세안센터는 졸업 후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주한 아세안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매해 아세안 청년 커리어 멘토십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본 행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지난 2년간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나 이번 해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대면 행사로 진행됐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는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선 'Basics of Job Application in Korea'란 주제로 부지영 진로취업지원센터 선임컨설턴트의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취업 역량에 도움을 제공하는 △국내 취업시장의 현황과 트렌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 △외국인 학생이 이력서와 자기소개

서 작성 시 유의할 점에 대한 설명으로 이뤄졌다. 2부는 'All about the Work Visa'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아세안 국가 유학생이 국내 학사 후 취업비자를 취득할 때 필요한 주요 정보를 다뤘다. 이어진 3부는 'Discussion with ASEAN Youth Mentors'로 행사에 참여한 아세안 출신 청년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



▲2022 아세안 청년 커리어 멘토십 (출처: 우리학교 동남아연구소)

는 아세안 출신 청년 멘토의 그룹 토의 시간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졸업 후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길 희망하는 아세안 유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 정보와 현지 청년 멘토와의 소통 기회가 제공됐다. 이어 주 최 측은 아세안 청년 간의 상호 협력적인 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했다. 김나정 우리학교 동남아연

구소 조교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 비해 많은 숫자의 아세안 출신 유학생이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다"며 "우리학교에도 아세안 출신 유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데 이러한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개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학교 동남아연구소는 1990년도에 설립돼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 11개 국가의 어문학 및 지역학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매달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 2회 정기 학술 세미나와 연 1회 이상의 국제 학술 세미나를 여는 등 다양한 학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양진하 기자 04jinha@hufs.ac.kr

우리학교, 한-이란 수교 60주년 기념 문화행사 개최해

지난달 우리학교 페르시아어·이란학과는 12일부터 14일 총 3일간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스마트도서관 5층 휠라아쿠스네트홀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에무시네마에서 한국이란협회와 공동으로 한-이란 수교 60주년 기념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962년 수교 이래 60년간 지속돼 온 우리나라와 이란의 교류를 기념하고 양국 문화의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열렸다. 이번 행사에선 첫째 날 이란학 국제학술대회를 시작으로 행사가 진행된 3일간 이란 사진전과 이란 영화제가 열렸다. 이어 마지막 날엔 페르시아어 말하기 대회와 이란 요리 및 음식이력서 제작 및 번역 페르시아어 말하기 대회 원고 작성 및 심사 작업이 이뤄졌다.

이란 사진전에선 23점의 이란 유적 사진을 전시하고 관

람객들에게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고 녹음한 오디오 가이드를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했다. 같은 기간 동안 개최된 이란 영화제에선 'Appendix'를 비롯한 6편의 이란 영화가 상영됐다. 사진전과 영화제 두 행사 모두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이란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이란 영화제에 참여한 김모진(아시아어과 19) 씨는 "이란 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영화제에 참여하게 됐다"며 "기존에 한글 자막이 없



▲지난달 12일 개최된 한-이란 수교 60주년 기념 문화행사 (출처: 우리학교 홍보실)

'Appendix'를 학과에서 만든 자막을 통해 더 쉽게 이해하며 관람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란 사진전에 참여한 염수지(아시아어과 20) 씨는 "사진전을 통해 이란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깨뜨리고 싶었다"며 "두 국가의 수교를 기념으로 서로의 문화를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행사 마지막 날인 14일엔 우리나라의 문화를 페르시아어로 소개하기를 주제로 페르시아어 말하기 대회가 개최됐

다. 유튜브를 통해 이란에도 실시간으로 행사를 생중계했다. 페르시아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남상후(아시아어과 17) 씨는 "행사에 참여한 이란인에게 우리나라 문화의 즐거움을 알리고자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고 답했다. 이어 "매해 개최되는 말하기 대회를 통해 후배들 또한 우리나라 문화를 이란에 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번 문화행사를 주관한 유달승 우리학교 페르시아어·이란학과 학과장(이하 유과장)은 이란인들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했다. 유과장은 "이번 해는 한-이란 수교 60주년이다"며 "이번 행사가 양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원준 기자 05wonjun@hufs.ac.kr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제1기 진로취업지원센터 학생 서포터즈 발족해

지난달 11일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진로취업지원센터(이하 진취센터)는 해당 기관의 인지도와 재학생의 프로그램 참여율을 향상시키고자 제1기 학생 서포터즈를 발족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 서포터즈는 이번 달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및 진취센터 프로그램 홍보와 더불어 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이주연(사범영과 21) 학생 서포터즈 대표는 "학생의 눈높이에서 진취센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며 "기인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서포터즈 활동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는 포부를 밝혔다. 진취센터는 학생 서포터즈에게 추후 진행될 진로·취업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활동 종료 후 수요증명서를 수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민정 우



▲제 1기 진로취업지원센터 학생 서포터즈 (출처: 우리학교 홍보실)

리학교 학생·인재개발처장은 "학생의 시선에서 직접 기획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뿐 아니라 1학년과 2학년 학생 또한 진취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학교는 2015년부터 대학일자리센터사업을 통해 다양한 진로취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대학일자리센터사업의 후속 사업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더욱 강화된 진로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이번 해 4월부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거점형 운영대학 우선 협상자로 뽑혀 재학생과 더불어 지역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진하 기자 04jinha@hufs.ac.kr

우리학교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 독도의 날 기념 포르투갈어 번역서 발행해

지난달 25일 우리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산하 HK+사업단(이하 HK+사업단) 지역인문학센터 '뽀카마피'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해 국립생태원이 제작한 도서 '생태로 읽는 독도이야기'의 포르투갈어 번역판을 발행했다. HK+사업단과 국립생태원 양 기관이 기획한 해당 도서의 번역 사업은 독도의 생태 환경과 같은 우리나라의 자연 자원에 대한 지식을 전 세계에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HK+사업단은 지난해부터 국제연합(UN) '하모니위드네이처(UN Harmony with Nature)'와의 협력을 통해 1·2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번 번역판 발행 사업을 주관하는 등 중남미에 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번역 사업은 포르투갈과 브라질을 비롯해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언어권 국가에 우리나라의 인문·자연·생태 자원을 전파하기 위해 기획됐다. 양은미 우리학교 HK+사업단 교수(이하 양 교수)는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된 계기에 대해 직접 독도에 체류하며 관찰한 자연 생태환경을 포르투갈어로 번역해 해외에 소개하는 방식이 독도를 외교적으로 다루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이번 번역본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번역판 발행 과정에선 포르투갈어 언어권 독자의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독도 동식물의 현지 명칭을 찾아내 포르투갈어로 옮겼다. 또한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해당 생물 이름의 스포르투갈·브라질 내 명칭 및 음가의 알파벳·한글 표기 등을 색인에 표시했다. 현성민(서양어·포르투갈어 21) 씨는 "이번 번역서의 발행이 국제 사회에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란 사실을 공고히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이번 번역서가 독도의 역사와 생태환경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연구하는 계기가 됐다"며 "번역서가 독도에 관한 귀중한 정보로 쓰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당 독도의 날 기념 번역서는 이후 포르투갈어에 이어 스페인어로도 번역될 예정이다.

한편 HK+사업단 지역인문학센터는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연구성과를 해외에 소개함으로써 양 문화권 지식 교류에 기여하고 있다.

정원준 기자 05wonju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2023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 모집(전형)일정

구분	1차모집	2차모집
온라인 원서작성 및 서류접수	원서작성: 2022. 9. 27(화) ~ 10. 6(목) 서류접수: 2022. 9. 27(화) ~ 10. 7(금)	원서작성: 2022. 11. 15(화) ~ 11. 24(목) 서류접수: 2022. 11. 15(화) ~ 11. 25(금)
면접 전형일	2022. 10. 22(토)	2022. 12. 10(토)
합격자 발표	2022. 11. 4(금)	2022. 12. 23(금)
등록예금 납부	2022. 11. 7(월) ~ 11. 15(화)	2022. 12. 26(월) ~ 2023. 1. 3(화)

*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지원자격

- 석사학위과정
 - 가. 학사학위 취득자 및 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박사학위과정
 - 가. 학사학위 취득자 및 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석사·박사통합학위과정
 - 가. 학사학위 취득자 및 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다. 지원과 관련한 전공관련 연구능력이 탁월한 자
 - * 지원전공 관련 실무경험자 및 해당지역 어학 성적표 제출자 우대
- 공통사항
 - 가. 본 전형의 응시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인 외국인인 나. 국제지역 전문요원 또는 국제지역 관련 전문분야의 학문적 능력과 연구 및 실무경력자 우대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접수방법
 - STEP1 - 인터넷 원서 작성 및 접수(우웨이아플라이, uwayapply.com)
 - STEP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모집과정 및 학과/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gsias.hufs.ac.kr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 특징

- 다양한 장학금 제도
 - 가. 한국학과 외국인을 위한 학비감면제도 (입학 시 선발)
 - 나. KIEP 장학금(인도, 중동·아프리카, 러시아·CIS, 중남미지역 전공자 대상, 입학 후 학과별 기준에 따라 선발)
 - 다. 신입생 입학성적에 따른 장학금 지급 (입학 후 지급)
 - 라. 재학 중 성적에 따른 장학금 지급
 - 마. 기타 국제지역장학금, 외부협력사업 조교 등 다양한 학비지원 제도 운영
- 비논트랙 운영 : 주입교수의 승인을 얻은 석사과정 학생은 논문없이 전공학점 추가 이수로 졸업가능(비논트랙 운영여부는 학과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
- 유엔평화대학 이중학위 프로그램 운영(국제학과, 한국학과, 중남미학과, 유럽연합학과)* 추후 학과결정에 따라 이중학위 프로그램 참여 학과는 추가될 수 있음
- 3+1제도 시행(선발자에 한하여 재학중 1학기는 해외에서 학점취득)

■ 입시문의

02)2173-2448, 2449
홈페이지 : gsias.hufs.ac.kr



학습의 기반을 이루는 와이파이, 학업과의 활발한 연결이 필요할 때

현재 우리학교는 학생들에게 무선 랜 통신 기술인 와이파이(Wi-fi)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11일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자유게시판엔 학교 와이파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엔 학교

와이파이 연결이 자주 끊기며 이는 특정 건물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란 논의가 오갔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상황 또한 마찬가지로 여론이다. △우리학교의 와이파이 제공 현황△캠퍼스 내 와이파이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나아가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의 와이파이 제공 현황

2010년대부터 우리학교는 학내 구성원들에게 캠퍼스 내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016년 이전까진 설캠엔 △강당△강의실 주위 복도△공동 이용 장소를 위주로 와이파이를 설치했다. 이후 2017년부터 강의실 및 실외 공간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 중이다. 글캠에선 2014년 백년관이 준공되며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 어문학관에 와이파이를 설치했으며 이듬해인 2016년부터 △공학관△수원구동△도서관△인문경상관△자연과학관△학생회관△후생복지관 등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며 그 수를 점차 늘려나갔다. 또한 설캠에선 2018년부터 국제적인 연구 및 교육 커뮤니티를 위해 개발된 에듀룸(Eduroom)와 이파이(이하 에듀룸)를 제공 중이다. 에듀룸에 가입돼 있는 기관의 구성원들은 전 세계의 교육·연구기관에 방문 시 자신의 소속기관에서 사용 중인 아이디로 방문기관의 와이파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글캠의 경우 외부인의 학교 와이파이 사용이 적고 학교 와이파이를 외부인도 인증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기에 에듀룸의 필요성이 낮다. 이에 글캠에선 에듀룸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우리학교는 이번 학기부터 학부 수업 방식 지침을 전면 대면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수강 인원이 60명을 초과하는 강의인 경우 교수 재량에 따라 비대면 강의로 전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학기 설캠과 글캠엔 각각 83개와 25개의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가 혼재하는 상황으로 인해 학교에서 비대면 강의에 참여하는 학생도 존재한다. 이에 캠퍼스 내에서 공부하는 학생과 비대면 강의를 듣는 학생이 늘어나 학교 와이파이 이용률이 증가한 상태다. 와이파이는 학생들에게 있어 학업 인프라 측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캠퍼스 내에서 비대면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선 와이파이 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비대면 강의는 시험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활하지 못한 와이파이 상태는 학생들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또한 글캠의 경우 공과대학 강의 등 멀티미디어실을 이용한 강의가 많이 이뤄지고 있기에 학교 와이파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캠퍼스 내 와이파이 관련 문제

지난달 11일 에타 설캠 자유게시판에 연결이 빈번하게 끊기는 학교 와이파이에 대해 지적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선 문제가 양 캠퍼스(이하 양캠)가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이며 공간에 따라 와이파이 연결이 끊기는 정도가 다르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이에 대해 외대학보는 캠퍼스 내 와이파이 관련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총 나흘간 캠퍼스 내 와이파이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인식 및 반응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캠 학생들은 주로 강의를 이뤄지는 △교수학습개발원△도서관△본관△사이버관△사회과학관 등에서 △수업 관련 자료 검색 및 과제 작성△실시간 비대면 강의 수강 및 시험 응시△취업 준비 등 기타 목적으로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설캠 응답자 전원이 캠퍼스 내에서 학교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데 반해 그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실제 설문조사에서 학교 와이

파이 이용 만족도에 대해 불만족을 표한 비율은 70.3%였다. 그 이유로 와이파이 이용 시 발생하는 잦은 끊김 현상을 꼽은 비율이 77.8%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 와이파이 연결을 시도할 때마다 거쳐야 하는 인증 절차의 불편함과 느린 인터넷 연결 속도가 각각 11.1%를 차지했다. 글캠 학생들도 수업 건물과 학생편의시설인 △공학관△교양관△도서관△백년관△어문학관△후생복지관 등에서 설캠 학생들과 같은 목적으로 학교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다. 글캠 응답자 중 92%가 학교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학교 와이파이 관련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83.3%로 지배적이었다. 그 이유로 와이파이 이용 시 발생하는 잦은 끊김 현상을 택한 비율이 85%로 가장 높았으며 느린 인터넷 연결 속도가 15%로 뒤를 이었다. 이동준(사범·영교 22) 씨는 "모든 건물에서 학교 와이파이를 접했을 때 끊김 현상을 겪었다"며 "학교 와이파이를 매번 인증 절차를 요구해 시간이 지체되었고 인증 절차를 마친 이후에도 비대면 강의 수강 도중 재차 인증 절차를 요구한 적이 있어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설캠 스마트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와이파이는 할당된 용량을 장비별로 나눠 사용하는 구조다.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다른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세션 * 을 차단하기에 오랜 시간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와이파이 연결이 끊기는 현상과 동시에 지속적인 인증 절차 요청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장비에 할당된 용량을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경우 와이파이를 통해 접속한 인터넷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기 위해 이클래스(e-Class) 및 웹엑스(Webex)를 통한 비대면 강의가 활성화됨에 따라 캠퍼스 내 와이파이를 이용한 동영상 시청이 증가하며 트래픽** 과다로 인해 와이파이 연결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승준(공과·컴퓨터 22) 씨는 "노트북 사용이 가능한 백년관 GPS라운지에서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을 때가 많아 불편을 겪었다"며 "교양관이나 공학관에도 사람이 많으면 와이파이 속도가 느려져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비대면 강의를 수강하기 어렵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나아가 할 방향

양캠 학생들은 학교 와이파이 관련 문제를 개선할 방안으로 학교 와이파이 연결 시 필요한 인증 절차 간소화와 주기적인 장치 교체 및 점검을 통

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강서현(서양어·포르투갈어 21) 씨는 "학교 와이파이 연결할 때 최초 인증을 마칠 시 이후에도 계속 사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된다면 매번 인증 절차를 밟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글캠 재학생 A씨는 "캠퍼스 내에서 강의 및 과제 준비△비대면 강의 수강△연구 활동 진행 등을 수행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온라인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며 "학교 측에서 와이파이 환경을 제대로 조성하고 노후한 장비들을 교체해 학생들의 불편을 조속히 덜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학교 와이파이를 담당하는 설캠의 정보지원처 IT인프라팀(이하 IT인프라팀)은 최근 설캠 스마트도서관 1층의 와이파이 장비를 대용량 장비로 교체 시험 중에 있다. 만족스런 결과가 나올 경우 다른 공간의 와이파이 환경도 점차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IT인프라팀은 "사무실에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해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장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엔 이를 즉시 확인해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캠의 정보지원처 정

보통신팀(이하 정보통신팀)은 지난 9월 글캠 기숙사 '휴스돔(HUFS Dorm)'의 학사운영팀과 함께 기숙사 인터넷 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 정승운 정보통신팀 관계자는 "주 1회 원칙으로 와이파이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방학 기간을 이용해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며 "네트워크 환경 개선의 경우 그 수요나 변화를 예측해 장기 계획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로 모든 건물의 저상능 및 노후 장비가 신속하게 교체되기 어려울 실정이다.

다른 대학 또한 학교 와이파이 환경에 대해 다양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경희대학교(이하 경희대)도 이번 학기부터 기본 수업 방침을 대면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캠퍼스 내 학교 와이파이 사용자가 늘어 잦은 끊김 현상이 발생했고 학생들의 불편이 존재했다. 경희대 정보처는 해당 문제에 대해 무선인증 과정에서 발생한 과부하를 원인으로 진단했으며 프로그램 속도 개선 및 부품 교체를 신속히 진행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전했다. 경희대 정보처는 와이파이 설비 점검 및 모니터링을 상시 진행 중이며 건물의 환경 개선 및 공사가 이뤄지는 경우 관련 장비를 교체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정보통신처 정보인프라팀에서도 와이파이 연결이 원활하지 않던 민원이 접수돼 담당자를 통해 와이파이의 신호를 측정하고 기술적으로 대응했다고 전했다. 또한 학교 와이파이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매일 정기적으로 점검이 이뤄지며 일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학교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엔 학교 와이파이와 관련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학생들이 온라인 환경에서도 학업을 원활하게 이어가기 위해선 충분한 예산 지원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한 캠퍼스 내 와이파이 개선이 필수적이다. 설캠 IT인프라팀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면 사용량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장비를 개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글캠 정보통신팀은 "담당 부처의 계획에 따라 와이파이와 관련한 기자재 구입과 설치 및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캠퍼스 내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와이파이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양 캠퍼스 총학생회 요구안, 학생이 학교의 주역이 되기 위해선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 '이룸'(이하 설캠 총학)과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총학 '외대의 봄'(이하 글캠 총학)은 우리학교에 △계절학기 등록금 인상△성적평가 방식 변동△학부 수업 시작 시각 변동 관련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에 지난 1일부터 3일간 글캠에선 '등록금과 학부 수업 시작 시

각 변동 관련 요구안'에 대한 학생 총투표를 진행했다. △양 캠퍼스(이하 양캠) 요구안의 배경과 진행 상황△양캠 요구안의 내용△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양 캠퍼스 요구안의 배경과 진행 상황

지난 2014년 12월 우리학교는 원어 수업 혹은 20명 미만 수강생 수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절대평가 수업 방식을 폐지한 후 해당 학기부터 상대평가 방식을 부분 적용했다. 이에 당시 총학을 맡은 김범(국제·11) 제48대 설캠 총학생회장이 '성적평가 규정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기각되면서 성적평가 기준의 변화는 없었다. 이후 지난 2020년 1학기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수업평가 방식도 절대평가로 전환했다. 지난해 2학기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자 대학 본부는 일부 대면수업을 진행하며 평가 방식을 다시 상대평가로 전환해 수강생이 11명 이상인 수업 내 A의 비율을 기존 30%에서 35%로 확대했다. 그러나 5% 확대만으로는 불충분하던 학생들의 여론이 거셌다. 이에 지난 3월 4일 설캠 총학은 학사제도협의회에서 절대평가 전환 혹은 평가 기준 완화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같은 달 15일부터 23일까지 총 9일간 설캠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2 학생요구안 설문조사'(이하 요구안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1,462명이 참여한 요구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월 11일 설캠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총장과의 대화에서 성적평가 방식에 대한 질의응답과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평가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 없다며 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반대 관점을 내세웠다.

지난 8월 4일 설캠 총학은 1차 성적평가개선위원회(이하 성개위)를 구성해 △기존 상대평가 완화△절대평가 도입△절대평가 도입과 상대평가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다음날 성개위 교수위원과 면담을 통해 요구안을 전달했으며 2차 성개위를 구성해 설캠 총학과 글캠 총학이 공동으로 요구안을 검토했다. 이후 9월 초 설캠 총학은 '2학기 맛이 총학생회 만족도 조사'(이하 2학기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후 지난달 14일 설캠에서 성적평가 방식 개선을 위한 '1014 집회'를 열고 서명운동을 통해 총 우리학교 학생 2,300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17일 교무처장과의 면담 후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중지)와 요구안 관련 논의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교무처장이 성적평가 방식 개선에 대해 설캠만의 입장을 반영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세우자 양캠은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합동요구안을 마련해 다시 학교 측에 전달했다.

지난달 7일 글캠 총학은 글캠 노천극장에서 열린 하반기 정기 정기총회에서 정기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총회 안건에 대한 QR 투표 링크를 배부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정기총회 안건이 무산되자 글캠 총학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대면으로 계절학기 등록금과 학부 수업 시작 시각 변동 관련 요구안에 대한 학생 총투표를 진행했다. 학생 총투표는 학생총회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의 최종 집계는 학생단위 총투표율이 50.46%로 △찬성 84.95%△반대 14.23%△기권 0.81%로 마무리됐다. 학생 총투표에 관해 글캠 총학은 "학생 총투표에 재학생 절반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며 학생들이 이번 안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던 점을 강조했다.

가 방식의 세부 응답지인 △성적평가 시 세부 평가지표 공개가 필요한가 △상대평가 등급별 기준 완화가 필요한가 △절대평가 도입 및 수업별 교수 자율 성적평가 선택이 필요한가란 물음에 과반의 학생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후 진행된 2학기 설문조사에서도 같은 답이 나왔다.

2014년 2학기부터 우리학교 성적평가 방식은 △A△B△C 유형으로 강의를 분류해 상대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A 유형은 △35% 이내 A+, A0△70% 이내 (A+, A0) + (B+, B0)△100% 이내 C+이다. B 유형은 40% 이내 A+, A0로 적용되며 △교직 이수△대학영어 진리반△수강생 10명 이하△이공계 실험 실습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C 유형의 수업은 P/F로 평가

다. 이어 상대평가 기준 완화의 경우 기존 A 유형을 '50% 이내 A + 80% 이내 (A+, A0) + (B+, B0)'로 변경하며 교수와 학생이 함께하는 성관위 마련의 경우 학과/학부 중심의 평가체제로 전환한다. 전환단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글캠은 설캠과 함께 학교 측에 성적평가 방식 개선을 요구한 것보다 더불어 추후 계절학기 등록금과 학부 수업 시작 시각 변동에 대해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글캠 총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계절학기 등록금 인상에 관한 요구안을 게시했다. 지난 여름 학기 기준 계절학기 등록금은 학점 당 85,000원이다. 이는 지난해의 79,000원에서 6,0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와 관해 글캠 총학이 제시한 요구안의 주요 내용으로 △계절학기 등록금 인하△인하가 힘들 시 현재의 계절학기 등록금 동결△등록금 인상에 따른 계절학기 수업의 질 개선△학부 등록금 동결이 있다.

지난 9월 글캠 총학이 실시한 학부 수업 시작 시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설캠과 글캠의 강의를 동일한 시각에 시작되는 것에 대해 총 67.7%의 학생이 반대했다. 학생들은 그 근거로 글캠의 위치 특성상 통학이 불편하던 이유를 제시했다. 현재 설캠의 경우 오전 9시에 1교시가 시작하나 글캠의 경우 1교시 시작 시각이 오전 9시 30분이다. 이에 글캠 총학이 제시한 학부 수업 시작 시각 변동에 관한 요구안엔 △학부 강의의 시작 변경 반대△학부 강의의 시작 변경의 구체적인 이유 제시△강의의 시작 변경으로 인한 학생 피해 대책안 마련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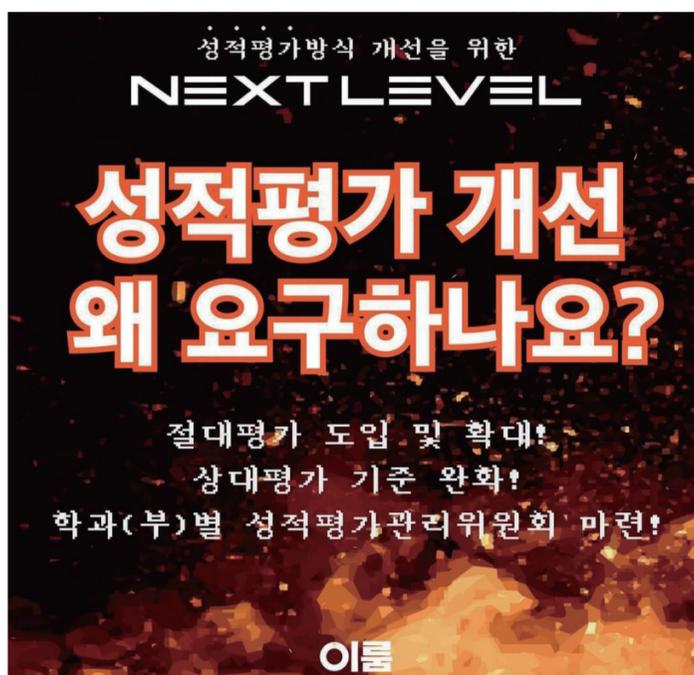
◆나아가야 할 방향

이번 해 학생들이 대학에 이와 같은 요구안을 발표한 경우는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시립대) 총학의 경우 교무처장과의 면담을 통해 완화된 상대평가를 요구해 시립대 교무위원회 회의에서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이 최종 결정됐다. 최종 결정된 변경 사항엔 시립대 총학의 '성적평가제도 변경 요구안'이 반영됐다. 이에 이룬 수업의 B+ 이상 비중을 50% 이내로 한 평가 방식을 갖고 있던 시립대는 지난 1학기부터 이룬 수업의 A0 이상 비중을 50% 이내로 하는 '완화된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했다. 평가 제도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 시립대 교무과 담당자 A씨는 "취업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시립대 학생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된 사안이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 입장이다. 황우정 우리학교 설캠 학중지 팀장은 양캠 총학이 제시한 요구안에 대해 "학내에서 학생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속해서 논의 중인 상황이다"며 "학생들의 모든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내에서 요구안에 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학교 측과 학생 측이 이에 대해 면밀히 논의해야 할 때다.



▲글캠 총학 요구안 포스터 (출처: 글캠 총학 SNS)



▲설캠 총학 요구안 포스터 (출처: 설캠 총학 SNS)

하는 방식을 말한다. 요구안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캠 총학이 제시한 성적평가 방식변동 요구안의 내용은 △교수와 학생이 함께하는 성적관리위원회(이하 성관위) 마련△상대평가 기준 완화△절대평가 도입 및 적용 확대. 절대평가 도입 및 적용 확대의 경우 △기초회화 및 언어 강좌 △소수 인원 수강 수업△원어 수업에 대해 절대평가를 도입하잔 내용이

◆양 캠퍼스 요구안의 내용

지난 4월 설캠 총학은 △교육환경△등록금△소통△진로·취업△성적평가 방식△우리학교 시설을 주제로 요구안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설캠 학생들은 가장 시급한 요구안으로 성적평가 방식을 선택했다. 성적평

에너지 남용, 대학이 마주한 에너지 문제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에공)이 발표한 에너지 다소비 대학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사이에 50% 이상 급증했다. 이번 해 한국 그린캠퍼스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고등교육기관의 전력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했는데 특히 2020년 대비 지난해 전력 사용량은 6.1%가량 증가했다. 이

에 대학의 에너지 남용 방지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학의 에너지 사용실태△우리학교의 에너지 사용 현황△바람직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여러 노력을 알아보자.

◆대학의 에너지 사용실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에너지 다소비국 10위다. 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 중이나 에너지 사용 효율 순위는 36개국 중 33위로 OECD 최하위 수준이다. 경제가 성장함에도 에너지 소비를 점차 줄이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국 그린캠퍼스협의회(KAGCI)와 에코시안 기술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연도별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최종에너지 사용량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제조업 등의 산업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통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되어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한 해 에너지 사용량이 2,000tce*가 넘는 건축물을 에너지 다소비 건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학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소재 대학 중 43%인 27개 대학이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지정될 정도로 호텔이나 백화점 등 타 업종 대비 에너지 소비가 큰 편에 속한다. 동일한 건물 수를 기준으로 대학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46만tCO₂eq**이고 호텔은 34만tCO₂eq로 다른 대규모 건축물에 비해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에공의 발표에 의하면 에너지 다소비 대학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사이에 50% 이상 급증했다. 대학에서 사용된 에너지 지원은 전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한에공이 발표한 '에너지 사용량 통계 및 에너지 사용량 신고업체'에 따르면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속한 대학의 에너지원별 사용 비중은 △전기 66.6%△가스류 32.1%△석유류 1.2%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대학 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대학 캠퍼스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건물 에너지 효율화 기반 부실△대학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한 대학 자체의 원천적 동기 부족△에너지사용량 측정 인프라 구축 부족이 에너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허점이 존재한다 지적도 나온다. 대학의 전기요금은 교육용으로 분류돼 일반 건물에 공급되는 전력비보다 25%가량 저렴하고 누진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취지와 별개로 현행 요금체계로 인해 정부가 대학의 전력 사용을 통제하기 어려워졌던 것이다.

◆우리학교의 에너지 사용 현황

우리학교 건설기획팀에 따르면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의 전기에너지 한 해 총 사용량은 7,731,341 kWh로 에너지 사용료로 환산 시 약 9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이를 toe로 환산하면 1,700tce다. 에너지 다소비 대학으로 분류되는 기준인 2,000tce와 비교해선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그러나 난방 면적 기준으로 단위 면적당(m²) 에너지 사용량은 에너지 다소비 건물 328개 건물 평균 0.054tce/m² 보다 높은 0.07tce/m²로 집계됐다. 또한 난방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0.247tCO₂eq로 에너지 총 사용량이 우리학교와 비슷한 삼육대학교가 0.083tCO₂eq를 배출하는 것의 두 배에 이른다. 이중원 우리학교 건설기획팀 과장은 우리학교의 주된 에너지 사용처를 주로 학생들이 머무르는 △기숙사△도서관△행정사무실이 위치한 본관 △강의실 순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설캠에선 전체 전기에너지 사용량만 측정이 가능하고 각 건물별 사용량은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 개별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분석에 따른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건설기획팀은 건물 내 전력 사용량을 개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교내 건물 전체를 아우르는 스마트 전력 제어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라 밝혔으나 재정상의 문제로 작업이 지체되고 있음을 전했다.

한편 우리학교에선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이에 설캠은 2020년 스마트 도서관을 완공하며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구체화한 바 있다. 스마트 도서관 건축엔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이 높은 공법을 사용해 냉·난방비 절감 및 단열 성능 개선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린 리모델링 공법이 적용됐다. 스마트 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은 옥상의 태양광 패널이다. 총 130kW의 태양광 패널은 도서관 전체 조명 사용량의 142%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우리학교 실시간 소비전력의 1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이외에도 우리학교 건설기획팀은 자체적인 에너지 절감 지침을 마련하며 에너지 과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 감축을 주목적으로 한 △개별 냉난방 시스템과 중앙난방 교차 사용△객실 관리 시스템 및 객실 감지 센서 설치△조명기구 격등 점등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주목적으로 한 고효율 인버터***를 적용한 기계장비 사용 및 신축 건물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바람직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여러 노력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및 '서울비전 2030'의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검토해왔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는 서울시 소재 건물 약 50만 동을 용도에 따라 12개 유형으로 분류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표준배출량을 관리 및 설정하는 제도다. 시 소유 건물에만 제도를 시범 적용했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 해엔 연 면적 1,000㎡ 이상 에너지 다소비 건물 등 민간 건물과 대학까지 제도가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또한 지난 10월 산통부는 대학을 대상으로 포함한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의 시행 계획을 밝혔다. 해당 공고의 주요 시행내용은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 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 온도 제한과 주요 권역별 난방 제한 시간 설정 등이다.

미국에선 이미 많은 대학이 에너지 과소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2020년 기준 미국 내 127개 대학 중 30%인 42개의 대학이 재생에너지를 통해 소비전력의 100%를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생에너지 한 해 전력 사용량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30개 대학의 재생에너지 매해 사용량은 33억 kWh로 미국 내 28만 가구의 한 해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학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문제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자원 분야에서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단 의견도 존재한다. 정부 지원 외에도 대학이 자체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해 에너지 문제에 주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단 것이다. 대학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 대학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tce : 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써 원유 1톤의 발열량 1,000만 kcal를 1tce로 정의한다
**tCO₂eq :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단위. 다른 배출원을 이산화탄소 단위로 환산할 때 'eq'를 후미에 붙여 표현한다
***인버터 : 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

한 비 기자 04hanbi@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3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2.09.30.(금) ~ 10.07.(금)	2022.11.14.(월) ~ 11.18.(금)
면접전형	2022.10.22.(토) 10:00	2022.12.03.(토) 10:00
합격자 발표	2022.11.04.(금) 16:00 예정	2022.12.16.(금) 16: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2.11.07.(월) ~ 11.11.(금) 예정	2022.12.19.(월) ~ 12.23.(금) 예정

◆ 모집 전공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교육 • 영어교육 • 컴퓨터교육 • 스페인어교육 • 일본어교육 • 중국어교육 • 역사교육 • 일반사회교육 • 유아교육 • 수학교육 • 상담심리(전문상담교사 2급)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영어교육 • 특수교육

◆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나. 외국대학, 독학사는 졸업자에 한해 지원 가능
 다.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라. 지원전공의 관련학과(전공)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전공학점 30점 이상 이수자

◆ 우대사항

가. 현직교사 장학금 지급
 나. 교원자격증 취득자는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 접수방법

- STEP1-인터넷 원서 작성 및 접수(유웨이어플라이Uwayapply.com)
- STEP2-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우편(등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 기한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일부 전공의 경우 온라인(비대면)면접을 실시 할 수 있음.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입 학 문 의 :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TEL 02)2173-2419 FAX 02)2173-3358
 ○ 주 소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건물 1층 111호실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 홈페이지 : gse.hufs.ac.kr
 ○ 이 메 일 : hufsgse@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어서 와 해외는 처음이지

아름다웠던 프랑스에서의 나날

지난 1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총 5개월간 7+1 과건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 디종(Dijon)의 브루고뉴 대학교(Université de Bourgogne) 소속 어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프랑스어를 배웠고 대학교에서도 같은 언어를 전공하면서 약 8년의 시간을 프랑스어와 함께했지만 프랑스에 기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언어가 다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장소에 가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프랑스어를 계속 공부할 거란 확신이 있었기에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본격적으로 프랑스에서의 생활을 준비했다.

평일 낮엔 어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난 오후엔 친구들과 시내를 돌아다녔다. △공원장△공원△광장△식당△미술관△박물관△서점△시장△카페 등 내가 사는 도시 곳곳을 경험했다. 주말이면 같은 기숙사에 살았던 우리나라 친구들과 시장에서 함께 장을 본 후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고 와인을 마시기도 했다. 수업이 끝난 주말엔 여행을 다녔다. 여유가 있는 아침엔 요가나 달리기 등 운동을 하며 체력에도 신경 쓰는 일상을 보냈다. 프랑스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웠다. 그럼에도 그 생활이 재밌는 기억으로 남은 건 일상을 보낸 공간의 풍경이 우리나라와 달랐기 때문인 것 같다.



프랑스에선 소매치기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그렇기에 공항에 도착한 후 많은 짐을 가지고 △기차△버스△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걱정된다면 한인 택시 이용을 추천한다. 또한 프랑스는 외식 물가가 높기에 생활비 지출을 줄이고 싶다면 직접 요리를 해 먹는 것이 좋다. 동네의 비육시장이나 요일장을 이용하면 엄청난 할가를 느낄 수 있고 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 프랑스로 어학연수를 가게 된다면 '문화카드(Carte Culture)'는 꼭 만들길 추천한다. 도시마다 발급 비용이나 혜택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문화카드가 있다면 대부분의 공연을 55유로만 저렴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다. 기차 비용 할인 혜택을 받

을 수 있는 카르트쥬(Carte Jeune) 카드도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여행을 다닐 때 교통비를 아낄 수도 있다. 프랑스 생활엔 두 가지의 아쉬운 점이 남는다. 첫 번째 바로 '주택보조금(CAF)'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이다. 주택보조금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다. 난 프랑스에서의 서류절차가 너무 번거로워서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꽤 적지 않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단 생각이 들어 아쉽다. 6개월 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번거롭더라도 주택보조금을 꼭 신청하는 걸 추천한다. 두 번째 여행을 자주 다녀지 않았던 것이다. 프랑스는 휴가 문화가 발달해 있어 전체적으로 관광업이 발달했다고 느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도시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프랑스 내 다양한 지역들을 충분히 여행하지 못하고 온게 아쉽기도 하다. 프랑스에 다녀오고 나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평생을

우리나라에서만 살 필요가 없단 것이다. 물론 외국 생활엔 외국인으로서 느낄 수밖에 없는 불편함과 부당함도 존재한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삶의 속도에 집착하지 않는 여유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프랑스의 분위기를 느끼고 내니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장단점이 확연히 비교되면서 내게 더 잘 맞는 나라가 어디인지 고민하게 됐다. 난 프랑스에 다녀온 후 다시 프랑스에 가고 싶단 생각으로 △프랑스 대학원△프랑스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직업△프랑스와 관련이 깊은 국내 회사를 알아보는 중이다. 독자 중에도 과거의 나처럼 두려움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망설여지는 학우가 있다면 과감히 해외로 나가 다른 세상에서의 삶을 경험해 보길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손수연(국제지역 · 프랑스 18)

프랑스

<단순한 열정>

- 소설이 아닌 솔직한 기록물 -



이번 해 노벨 문학상은 '아니 테레즈 블랑슈 에르노(Annie Thérèse Blanche Emaux)'(이하 아니 에르노)에게 돌아갔다. 아니 에르노는 1974년 자전적 소설인 '번 장롱'으로 등단한 이후 1984년 작품 '자리'로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인 르노도상을 수상했다. 그녀는 "직접 체험하지 않은 허구를 쓴 적은 한 번도 없고 앞으로라도 그럴 것이다"며 자신의 작품 세계를 규정했다. 실제로 아니 에르노는 자신

이 낙태 수술을 받은 경험을 작품 '사건'에서 서술했고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쓴 일기를 모은 '외적인 삶'을 출간하기도 했다. 그녀의 작품 14권은 모두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이는 각 시대의 사실적인 기록물로 남아있다. 이처럼 아니 에르노에게 글과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니기에 그녀의 작품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선 그녀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아니 에르노는 1940년 프랑스 코뮌 릴본느(Lillebonne)에서 태어나 식료품 가게와 술집을 겸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 빈곤했던 그녀는 사립학교에 입학하면서 가난한 자신의 부모와 중산층인 동급생의 부모의 생활방식을 비교하며 처음으로 열등감에 빠진다. 그녀가 이 시기에 겪었던 △수치심△열등감△질투 등의 감정은 향후 그녀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여러 작품을 꾸준히 발간했고 1991년엔 연하의 외국인 유부남과의 사랑을 다룬 단편글 '단순한 열정'을 발표한다. 이 작품이 발표되고 평단과 독자들은 큰 충격에 빠진다. 불륜이란 소재가 파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책의 내용 또한 지나치게 솔직하고 선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아니 에르노의 작품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터부시되는 민감한 주제를 자신의 경험으로 풀어내 날카롭게 지적했던 점에서 대중과 평단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단순한 열정'은 발행 당시 이성 간의 정신적 유대나 소통 없이 원초적인 욕정만을 기술했다는 이유로 노출증의 일환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이러한 평가에도 아니 에르노는 자신의 글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단순한 열정'에서도 서술하고 있듯 그녀의 글쓰기는 같은 시간대에 남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는 병적인 욕망인 노출증과는 확연히 다르다. 아니 에르노는 누군가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실시간으로 보길 원했던 것이 아니고 그저 겪은 일을 글로써 기록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를 읽는 독자는 그녀가 작품 속의 일을 겪고 난 한참 뒤에 책을 읽게 되거나 아예 읽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책을 읽을 때 도덕적 판단은 유보하는 것이 좋다. 아니 에르노의 글을 도덕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녀의 기록물을 있는 그대로 읽지 못하게 된다. 그녀가 도덕적인 반성이나 후회 없이 솔직하게 글을 썼듯이 독자도 도덕적 판단은 잠시 내려두고 그녀의 글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아니 에르노의 글 안에 담긴 솔직함과 용기를 느껴보길 바란다.

양진하 기자 04jinha@hufs.ac.kr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3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3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2.09.23(금) ~ 10.07(금)	2022.11.07(월) ~ 11.21(월)
고사장 발표	2022.10.19(수) 15:00	2022.11.30(수) 15:00
면접전형	2022.10.22(토) 10:00 예정	2022.12.03(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2.11.03(목) 15:00	2022.12.15(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2.11.07(월) ~ 11.11(금)	2022.12.19(월) ~ 12.23(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공지)

7. 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다. 현직 교사 장학금(매학기 지급)
라. 학정 인정 혜택 (한국외대TESOL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관련 석사학위소지자, TESOL자격증 취득자)
마. TESOL연구과정(자격증 과정)수료자 우대
바. 복수학위프로그램(템플대학교), 3+1 프로그램(하와이대학교)
사. Internship 프로그램(California State University, Selkirk College)
자. 추가학점이스트랙신설 (논문·출업연구보고서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교과과목

TEL_02-2173-3521~2FAX_02-217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문로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전문대학원(야간) 2023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3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2.09.23(금) ~ 10.07(금)	2022.11.04(금) ~ 11.21(월)
고사장 발표	2022.10.19(수) 15:00	2022.11.30(수) 15:00
면접전형	2022.10.22(토) 10:00 예정	2022.12.03(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2.11.04(금) 15:00	2022.12.16(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2.11.07(월) ~ 11.11(금)	2022.12.19(월) ~ 12.23(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공공감사·정책학과(공공정책, 공공감사)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미디어커뮤니케이션)
라. 문화언어테이먼트학과(문화언어테이먼트)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유웨이어플라이 www.uway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공지)

7. 기타사항

가. 장학금 ("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 함)
-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 성적우수 장학금
- 공로 장학금 - 학비감면 장학금
- 원우회 임원 장학금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
- 본 대학원 내 학과간 교차수강(졸업학점의 50% 까지) 가능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psp.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차처 사무2팀 (정치행정전문대학원)

TEL_02-2173-2428,2429 FAX_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문로 107(이문동 270)



교부금 개편안 논쟁, 교육기관의 재정 균형을 위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의 액수가 증가세를 보이며 교부금에 대한 개편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윤석열 정부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어 유·초·중등 분야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전용 예산인 교부금을 대학에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교부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에 지난달 24일 서울

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여는 등 해당 개편안에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교부금 개편안의 △내용△장점△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지난 7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이 공개된 후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어 대학에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교부금 개편안이 화두에 올랐다. 정부가 제시한 교부금 개편안의 핵심은 초·중·고등학교에 지급하던 교부금 중 3조 6000억 원을 대학에 나눠준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출의 책임 및 권한은 전적으로 지방교육청이 맡으며 재정 수입은 △교육청 자체 수입△중앙정부의 교부금△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으로 이뤄진다. 이중 교부금은 수입의 80%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구성된다. 교부금은 결국 내국세의 규모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다. 교육재정이 내국세와 연동된 것은 과거 우리나라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교부금 제도는 1972년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초·중등 교육에 고정적으로 투자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번 교부금 개편안이 추진된 이유엔 내국세 규모의 증가에 따라 교육재정에 많은 예산이 할당되는 반면 고등교육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던 사실이 꼽힌다. 또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내국세에 따라 매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던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번 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교부금은 81조 2,975억 원으로 지난해 60조 3,371억 원과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한 교육교부금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쟁

시도 교육청은 교부금을 한 해 동안 다 사용하지 못하면 기금으로 적립해 다음 해 예산으로 이월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기금 보유액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번 해 교육부·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의 기금 보유액은 △2019년 1조 1,828억 원△2020년 2조 3,056억 원△지난해 4조 8,635억 원이며 이번 해엔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이경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그동안 등록금 동결과 장학금 확대로 대학생들의 부담을 낮춰 왔다면 이제는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하연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정 운영에 있어 다른 부분의 예산은 부족한 것에 비해 초·중등 교육만 돈을 적립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회원 198개 대학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소속 133개 대학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보였다.

시도 교육청과 달리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재정 운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초·중등에 할당된 예산과 비교했을 때 대학에 할당된 정부의 지원 금액은 그 차이가 현저히 크다.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한국경제연구원의 의뢰로 발표한 '교육교부금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해 초·중등학생 1인당 교부금은 1,528만 원이다. 이에 비해 대학생 1인당 정부 지원액은 385만 원이다. 초·중등학생 1인당 교부금과 대학·대학원생 1인당 정부 지원액이 약 4배에 달하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에 백정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예산의 배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3일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2'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초·중등교육 단계의 국내총생산(이하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인 3.1%보다 0.3%p 높은 3.4%였으나 고등교육 단계의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인 0.9%보다 낮은 0.6%였다. 36개의 OECD 회원국 중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공교육비가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공교육비보다 적은 나라는 스리랑카·우루과·콜롬비아 3개국뿐이다.

한편 교부금 개편 방향성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거세다. 지난달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출범식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며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 등 공동대책위를 제안한 10개 단체△학부모 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등 총 132개 단체로 이뤄졌다. 전국 시도 교육감과 여러 교육 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공동성명에서 이들은 "열악한 유·초·중등교육 환경의 질적 전환을 위해 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측은 교육재정 문제를 학생 수 증감의 측면에서만 바라봐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드니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교육비와 교육재정도 함께 줄어들어야 한다는 논리만을 따라선 안 된단 입장인 것이다. 교육재정은 단순히 학생 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학교△학급 등 다양한 변수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 교육재정의 60%가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의 경직성 경비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를 학생의 수와 비례한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학생의 수는 줄었으나 학교와 학급의 수는 증가하고 있던 것도 고려할 요소 중 하나다. 또한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선 현재의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며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미래 교육을 향하는 현시점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교총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엔 학급당 30명 이상의 과밀 학급이 2만 개가 넘고 건물의 40%는 30년이 넘는 노후 건물이다. 또한 유해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학교는 5,400여 곳으로 45.7%에 달한다. 충분한 예산으로 시설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고교학점제 대비 교원 확충과 인공지능(AI)·메타버스(Metaverse) 기반 교육 강화 등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 마련에 교부금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야 할 방향

한편 교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

단 시선도 있다. 고등·평생교육의 예산은 교부금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단 주장이 존재한다.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대학은 교육세를 개편하거나 대학 자체적으로 교육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재정 확보를 위해 교부금을 이용해서 안 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경제 여건이 악화될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열악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유·초·중등 예산을 빼어 활용하는 임시방편보다 고등교육교부금 제도 등을 신설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교부금이 늘어나게 된 근원적 이유인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함으로써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단 의견도 존재한다. 이번 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김 연구위원)의 연구를 기반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의 개편 필요성과 장기 재정 여력 개선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내국세와 교부금 간의 연결고리를 끊어 교부금의 산정 방식을 바꾸고 교부금에 반영되던 내국세를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한다면 2060년까지 누적 기준 1,366조 3,000억 원의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해에 약 34조 원의 중앙정부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내국세 연동방식으로 초·중등 교육재정을 마련하는 국가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스미국△영국△일본 등은 정부가 교육환경과 재정수요를 고려해 매해 초·중등 교육예산을 책정한 후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이를 확정한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돼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각 학교자치구가 과세 권한을 가지고 교육 재원을 일부 조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학교자치구는 교육행정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재원조달의 책무도 지니고 있어 재산세가 주요 수입이며 주민투표로 세율을 변경하여 수요에 맞는 조정이 가능하다. 일본과 영국은 일반행정에 교육예산이 포함된 일원화 구조이다. 재정이 부족한 부분에 교육재정을 유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반대로 교육재정이 부족할 경우 다른 부분의 예산을 부족한 교육예산을 충당하는 데 쓸 수도 있는 것이다. 교육재정과 그 외의 재정을 매해 수요에 맞게 편성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의 재정이 남거나 넘치지 않을 수 있다. 개편안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에 균형 잡힌 교육재정을 위한 현명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이태원에 드리운 비극, 안전 체계의 빈틈으로 떨어진 사람들

지난달 29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골목에서 핼러윈(Halloween)을 맞아 모여든 사람들이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후 맞이한 첫 핼러윈 행사였기에 평소보다 많은 인가 모였고 이에

따라 길거리 질서 유지에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이에 사후 대처 및 사고 발생 책임 소재 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사고 발생 책임 소재 논란△우리나라의 미흡한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해 알아보자.

◆이태원 압사 참사

서울시의 '이태원 지역 생활인구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참사가 발생한 지난 달 29일 오후 10시 기준 이태원에 7만 2435명의 인구가 운집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이태원에서 가장 높은 인구 밀집도로 집계됐던 지난 2017년보다 840여 명 더 높은 수치다. 이처럼 많은 인원이 이태원에 몰렸지만 당시 거리는 별다른 통제 없이 매우 혼잡했으며 사람들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했다. 압사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경찰과 전문가들은 경사가 심한 좁은 골목길에 많은 인원이 모여 이동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당시 사고가 일어났던 거리는 지하철 이태원역 1번 출구와 인접해 있어 클럽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기려는 사람들과 골목을 빠져나가기려는 사람들이 겹쳐 질서가 무너진 상태였다. 사고 발생 직후엔 교통이 혼잡해 병원 이송과 응급처치 등 사고에 대한 수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문헌철 숭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4분이란 골든타임(Golden Time) 내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았기에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말한 데 이어 "사고 발생 골목의 폭이 32m로 좁았고 주변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로 인해 대응이 쉽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컸다"고 전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156명이 사망하고 197명이 부상을 입어 총 35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직후 정부는 사후 대처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 대통령)은 사고 당일 인명 피해 소식을 보고받은 후 "피해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구급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모든 정부 부처와 기관에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 이후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사고 수습을 위한 후속조치를 이어나갔다. 또한 지난달 30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태원 사고에 대해 일주일간 국가에도 기간을 선포하며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의 행사와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장병 발생 이후 처음으로 선포된 사례다.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약속도 이뤄졌다.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열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며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혔다.

◆사고 발생 책임 소재 논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고였기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소재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경찰의 통제를 바탕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비판 여론이 존재한다. 이들은 핼러윈을 맞아 많은 사람이 이태원에 모일 것으로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을 통제하는 경찰관의 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사범대학 교수(이하 임 교수는)는 "경찰은 다수의 인원이 몰릴 수 있던 길 경험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던 점을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사고 당시 이태원에서 공무를 수행한 경찰관은 137명으로 7만여 명의 인원을 통제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배치됐던 경찰 대부분도 군중 통제가 아닌 마약과 성범죄 등의 단속을 맡아 현장 통제는 더욱 어려웠다. 임 교수는 "경찰이 △마약△성범죄△스무 등에 대한 단속에 집중할 것 같다"며 "혼잡한 상황에 대비한 경찰 경비 병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은 실책이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사고 발생 당시 대부분의 경찰 기동대가 광화문 집회 등 시위에 치중됐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난 1일 경찰청은 사고 발생 당시 접수된 신고에 대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압사 사고에 대한 신고가 총 79건이 접수됐고 녹취록이 공개된 11건의 신고는 모두 사고 발생 장소 주변에서 이뤄졌다. 첫 번째 신고가 사고 발생 4시간 전인 오후 6시 34분에 접수됐기에 경찰이 충분히 출동할 수 있었음에도 능동 대응을 한 것이 아닌 비판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사고가 경찰의 능동 대응의 결과라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도록 지시했다. 경찰청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를 꾸려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지난 1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고 발생 이전부터 많은 군중이 몰려 위험성을 알리는 급박한 내용의 신고가 존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고 사과를 전했다.

안전에 위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크다 목소리도 존재한다. 지난달 26일 용산구청은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의 요청으로 협업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소음△식품안전△쓰레기 배출 등에 대한 논의만 이뤄졌을 뿐 군중 통제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지 않았다. 또한 실제로 많은 이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는 부실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하 박 구청장)이 사고 당일 두 차례에 걸쳐 사고 현장 인근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군중 통제에 대한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6일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 구청장을 포함한 6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지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우리나라의 미흡한 안전 관리 체계, 개선 방향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행사의 주최자가 명확하지 않은 민간 행사의 경우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한 의무를 갖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물을 수 없다. 사고가 발생하기 보름 전인 지난달 15일 이태원에선 '이태원지구촌축제'란 이름의 대규모 행사가 개최됐다. 당시 행사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에서 개최했기에 책임 소재가 명확했다. 따라서 행사 관련 안전 관리 지침이 존재했고 1,0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 그러나 지난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책임자의 주최로 이뤄진 행사가 아닌 이태원의 가게들이 형성한 핼러윈 분위기에 의해 군중이 몰린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같은 장소에서 개최됐던 앞선 행사와 달리 안전 대책 마련이 필수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박 구청장은 이번 참사에 대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는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다. 이에 미국의 군중 관리 전문가 폴 워트하이머(Paul Wertheimer)는 "주최 측이 없어 군중 관리 책임이 불분명하던 한국 정부의 발표는 납득하기 힘들다"며 "수만 명이 모이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다"고 우리나라 안전 관리 체계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지난 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한 군중 관리를 포함한 국가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흡한 안전 관리 체계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재 주최 측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 행사의 안전 관리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념일을 맞이해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장소엔 질서 담당 경찰관인 '디제이 폴리스(DJ Police)'를 배치한다. 이들은 △경찰△구청직원△민간 경비업체로 구성돼 있으며 확성기와 경찰 통제선을 통해 군중들의 질서를 유지한다. 또한 길거리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야 음주를 금지하고 음식점과 편의점의 주류 판매를 자제시킨다. 미국의 경우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군중 통제를 실시한다. 뉴욕(New York)에선 매해 길거리에서 핼러윈 축제가 열리는 날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중심 거리 100곳의 차량을 통제한다. 또한 캘리포니아(California)에선 축제 개최 인근 지역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주의 경보를 발령해 이동이 원활한 거리 환경을 조성한다. 이태원 사고와 같은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안전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사전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다.

김상연 기자 04sangyeon@hufs.ac.kr

www. 시사 한 줄 토익.com

정치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장돼

지난 3일 분단 이래 처음으로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이내의 공해상 방향으로 '단거리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지난 2일 10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총 25발가량의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이날은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자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달 31일부터 5일간 진행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의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사회 고용노동부, SPC 전 계열사에 대해 근로감독 진행해

지난달 15일 SPC의 계열사인 SPL 제빵 공장에서 20대 직원이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끌려들어 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지난 2일 고용노동부는 직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 전 계열사에 대해 지난달 31일부터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2012년 이후 최대 하락 폭 보여

지난 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34%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12년 6월 11일 이후 가장 큰 하락세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모두 하락 폭이 증가하며 전국 아파트 가격의 하락 폭은 0.32%를 기록했다.

국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 공산당 총서기 3 연임 확정돼

지난달 16일부터 22일까지 총 7일간 열린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하 시 주석)의 중국 공산당 총서기 세 번째 연임이 확정됐다. 시 주석은 이번 당 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해 최소 15년을 집권하게 됐다. 중국의 국가 주석이 세 번 연속으로 집권하는 건 27년간 집권했던 마오쩌둥 사후 처음이다.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자금 경색,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지난 2020년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 진행을 위해 2,050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그러나 이번 해 레고랜드 개장 후 수입이 마땅치 않자 지난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이하 김 도지사)는 자산

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을 철회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나라 채권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급감하며 기업 및 국영 공사에 대한 채권 유찰이 이어지고 있다. 손종철 우리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만나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자금 경색에 대해 알아보자.

손종철 우리학교 경제학부 교수

Q1. 이번 레고랜드 사태의 발생 배경이 궁금합니다.

제조업 기반이 비교적 약했던 강원도는 관광 수익과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레고랜드 유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레고랜드 건설이 지연되며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건설자금 마련을 위해 2020년 중반에 2,050억 원 규모의 2년 만기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발행했고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섰습니다. 레고랜드 개장 예정일이 지난해였기 때문에 어음 만기일 이번 해까지 레고랜드 운영 수익을 통해 해당 어음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재확산으로 개장일이 이번 해로 연기됐으며 개장 이후에도 레고랜드 수입이 충분치 않고 급리가 급등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 겹치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Q2. 채권의 신용 등급 체계 및 등급 선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궁금합니다.

채권의 신용 등급은 최상위 등급인 AAA부터 부도 가능성이 높은 등급으로 분류되는 B 이하의 등급까지 다양한 층위로 존재합니다. 보통 BBB 등급까지 원금과 이자 지급 능력이 양호한 투자 등급으로 분류되고 BB 이하 등급부터 투기적인 요소가 들어가면서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상환 능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 판단돼요. 보통 채권의 신용 등급이 낮아질수록 투자자 입장에서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에 더 높은 이자율이 붙게 되죠. 이번 사태에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인 강원도의 지급 보증이 더해졌기 때문에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이 일종의 공사채로서 A1이란 높은 신용 등급을 받을 수 있었어요.

Q3. 김 도지사가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국내 경기가 침체되자 이를 철회한 상황입니다. 일반 공·사기업이 아닌 지자체의 회생 신청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이 궁금합니다.

지난 9월 20일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기업어음 중 만기일이 다가온 412억 원에서 대해 자체 상황이 불가능하다 보고를 했습니다. 이어 김 도지사는 지난 9월 28일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을 발표했어요. 기업회생이란 상환해야 할 금액 중에서 85%는 해당 기업, 즉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주식으로 대신 갚고 나머지 15%만 여러 해에 걸쳐 기업이 자체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기업의 질서 있는 회생을 돕는 취지의 좋은 제도이지만 이번 사태에서 기존의 채권자는 지자체인 강원도의 지급보증을 신뢰했기에 약속됐었던 원금과 이자가 적정 가치를 가능

할 수 없는 주식으로 전환된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Q4. 김 도지사의 회생 신청 발표 이후 채권시장에 위기가 다가왔던 의견이 존재합니다. 전국적인 채권시장 경색에 큰 영향을 끼친 원인이 무엇인가요?

금융시장은 차입자와 대여자 간의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그러나 이번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이러한 금융시장 내 신뢰 관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번져나갔어요. 이미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대응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최저 금리 수준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될 조짐이 보이며 국내 채권시장은 긴장감이 높아져 가고 있었죠. 이번 시기에 차입자와 대여자 간의 신뢰 훼손은 전국적인 채권시장의 경색 문제로 확산됩니다. 지난달 중하순부터 △국가철도공단△부산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공사와 같이 높은 신용등급을 받았던 기존 공기업의 회사채 발행까지 유찰되면서 우리나라 채권시장은 전반적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Q5. 현 사태로 인해 사기업 및 국영 공사가 어떤 피해를 받고 있나요?

국내 채권시장의 경색으로 인해 높은 신용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컸던 우량 기업의 채권 발행에도 이자율 상승 등 추가적인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이에 따라 향후 우량 기업에 속하는 공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때 보다 높은 이자율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량 기업의 채권 발행 금리 상승에 따라 그 아래 등급인 민간 기업 등의 채권 발행 금리 또한 연쇄적으로 높아지며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죠. 특히 공기업 등 우량 기업이 보다 공격적으로 자금 확보에 나서는 경우엔 비우량 기업의 유동성이 더 빠르게 고갈되고 현재보다 높은 이자율 등의 프리미엄이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기에 자금조달 비용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Q6. 레고랜드발 사태가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공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보다 더 큰 문제는 국제에 준하는 신용도를 가지는 지방채 시장의 신뢰가 붕괴됐던 사실이에요. 지자체인 강원도에게 지급보증을 약속 받아 안전한 투자 수단으로 인식하고 자금을 조달했던 채권자 입장에서 향후 정치적 상황이나 여러 경제 여건의

변화로 지급보증 약속이 하루아침에 무가치해질 수 있던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죠. 이러한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의 문제는 국제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평가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를 의미하는 'CDS 프리미엄(Credit Default Swap premium)'이 크게 상승한 상태예요. CDS 프리미엄은 국가 신용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국가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그 국가의 CDS 프리미엄은 높아집니다.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은 이번 해 11월 들어 70bp 내외를 기록해 19bp였던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상승한 상태죠.

Q7. 지난 10월 정부에선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시장에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이 대책의 효용성 및 이 사태에 대한 다른 해결방안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2,050억 원은 우리나라 전체의 채권시장 규모나 한 해 예산 등을 고려할 때 그렇게 큰 자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가 국내 채권시장 전반의 자금시장 경색으로 확산되자 결국 50조 원 이상의 규모의 유동성 공급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규모의 유동성 공급과 함께 강원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번 해 12월 15일까지 2,050억 원을 모두 상환하기로 결정하면서 급한 불은 끈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최근에도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일부 매각 불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20년 만기의 채권 발행 포기△한국생명의 외화채권 발행 실패 등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며 아직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모두 해소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정책 금리 인상 등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무제한적인 유동성 공급엔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고랜드발 사태와 같은 상황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먼저 금융시장 체계를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적절히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엔 조지급리 시기에 계획된 다수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및 개발 사업 중 미래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질서 있게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등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별하는 능력도 필요해요. 이처럼 부실 사업에 대한 정리가 이뤄져야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지속적으로 채권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가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의 가치를 판단해 대출해주는 방식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자산 유동화 전문 회사에서 △매출 채권△부동산△회사채 따위의 자산을 담보로 해 발행하는 기업 어음

조수빈 기자 05subi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3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3학년도 전기 입학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2.10.04(화) ~ 10.14(금)	2022.11.14(월) ~ 11.25(금)
고사장 발표	10.20(목) 15:00	12.01(목) 15:00
면접전형	10.22(토) 10:00 예정	12.03(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11.03(목) 15:00	12.15(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11.07(월) ~ 11.11(금)	12.19(월) ~ 12.23(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은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3.0(4.5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다.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 문화·문학 학과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금 학기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인 경우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중등학교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제출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원서 접수기간 내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 서류

-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출력)
-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5)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 6) 학적조화동명서 1부(원본)
- 7)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중 필요)
- 8)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 9) 재정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나. 외국대학 학원취득자

-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 2) 성적 제출서류
- 3)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 4)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 나. 최소 3학기(2학기 졸업 가능(학업우수자))
-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환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중등서 수어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d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중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책 '산자들'을 읽고] 각자가 가진 능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작가 장강명의 소설집 '산자들'에 수록된 단편소설 '새들은 나는 게 재미있을까'엔 학교 내 급식 비리 사건에 대처하는 세 학생이 등장한다. 세영고등학교 소속 학생인 △'기준'△'제문'△'주원'은 급식 비리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학교 측을 비판한 전단을 배포한다. 최소 1억 8,000만 원어치의 식자재비를 빼돌린 비리였다. 이에 세 학생은 전단을 돌리며 학생들에게 이 사태를 알렸고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할 만큼 큰 관심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학교로부터 대학 입시를 앞둔 시기에 면학 분위기를 해친단 말을 듣기도 하고 교감실에 불려가기도 했으며 심지어 학생들마저 그들을 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언론 보도로 사건이 공론화돼 교장과 교감이 해임되고 학교 홈페이지엔 재단 이사장 명의의 사과문이 올라오게 된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제문은 문득 토론 동아리에서 '새들은 나는 게 재미있을까'란 주제로 토론했던 일을 떠올린다. 새들에게 나는 일은 오히려 힘든 일일지도 모른다 의견과 당연한 일이라 재미가 없을 거란 의견으로 나누었다. 하지만 제문은 다른 이들과 달리 오히려 새들은 날 때 기쁨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는 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자신이 그 힘을 놓칠 수도 있음을 깨닫고 몸에 달린 날개를 목적이 맞게 쓰기 때문이다. 그리곤 사과를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주동자를 알아내는 데 집중했던 교감을 떠올리며 씁쓸함을 느낀다. 교감이라면 분명 상황을 더 좋게 만들 능력이 있

음에도 그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리를 숨기기 바빴기 때문이다.

비리는 비단 소설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리는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지난달 4일 인천시교육청의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에서 응시자가 요청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직 초등학교 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또한 지난달 20일 경기도 국가대표 '팀킴'의 폭로로 지원금을 횡령했던 사실이 밝혀져 재판에 넘겨진 김경두 전 대한컬링연맹 회장 직무대행의 비리 사건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소설 속 교감처럼 높은 지위에 있어 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권한을 악용한 것이다. 우리는 소설 속 자신의 지위를 긍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교감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능력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능력이란 것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성격△재능△지위 등 한 사람의 모든 특징이 전부 능력이 될 수 있다. 위로를 잘 해주는 성격이라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를 해주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노래를 들려주면 된다.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다.

김예주 기자 05yejoo@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보고] 마음껏 슬퍼하기 위해

주인공인 열두 살 소녀 '라일리'의 머릿속엔 감정을 통제하는 중앙본부가 있다. 그곳에서 일하는 다섯 가지 감정 △'기쁨'△'까칠함'△'버럭'△'소심함'△'슬픔'은 라일리의 감정을 맡아 조절해 핵심 기억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만들어진 핵심 기억은 △가족△우정△정치 등 다양한 주제로 묶여 라일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여러 섬을 구성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다섯 감정들은 그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낸다.

아버지의 사업 이전으로 오랜 고향인 미네소타(Minnesota)를 떠나게 된 라일리는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지 못하고 슬픔과 고립감을 느낀다. 감정 통제 본부의 대장인 기쁨이는 라일리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도록 슬픔이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슬픔이가 숨을수목 오히려 라일리는 더 큰 혼란과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한편 핵심기억을 보관하는 장기 기억 보관소로 가는 통로가 망가지는 사고로 기쁨이와 슬픔이는 감정 통제 본부 밖으로 이탈하게 되고 라일리가 갖고 있던 모든 인격과 감정은 마비돼 버린다. 기쁨이도 해결할 수 없는 라일리의 감정 불능 상태를 깨운 건 다름 아닌 슬픔이었다. 라일리가 느꼈던 슬픔이란 감정은 그저 통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자연스레 받아들여져야 하는 그녀의 본모습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슬픔이란 감정을 다른 감정들에 비해 유난히 꺼려왔

다고 생각한다. 감정은 어느 것 하나 떼어놓고 구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도 기쁨은 좋은 것이고 슬픔은 그렇지 못한 것이라 구분한 채 슬픔을 멀리해왔기에 우린 슬픔을 대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다. 기쁨과 슬픔은 서로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단 사실을 우린 너무나도 쉽게 망각한다.

슬픔은 기쁨이란 감정의 단순한 이면이 아닌 또 다른 나의 일부다. 슬픔을 포함해 마음속의 모든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 결국 '나'라는 존재의 구성요소가 된다. 그렇기에 모든 감정은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 마땅하다. 자신의 슬픔을 제대로 마주하는 건 곧 나의 내면과 가장 진솔하게 마주하는 방법과도 같다. 특히 다른 사람의 슬픔보다 자신의 슬픔에 너그럽지 못한 경우가 많은 우리는 더더욱 스스로의 슬픔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슬픔을 마주하는 건 익숙해지기 어렵다. 그렇지만 반복된 연습을 통해 이룰 어떤 식으로 견뎌내야 할지 배우며 우리들의 슬픔과 가까워져야 한다. 스스로의 슬픔에 마음껏 슬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

한 비 기자 04hanbi@hufs.ac.kr



역설의 기적

어렸을 때 절대 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한 직업 중 하나가 기자였다. 중학교 시절 접한 드라마 '피노키오'에서 묘사된 기자의 모습이 너무 고달파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비취벌레가 나오는 기자실의 모습이 충격적이었다. 실제 기자의 인터뷰에서 드라마 속 열악한 환경에 현실이 반영됐다고 언급돼 놀란 기억이 있다. 1학년 2학기로 복학하던 시점에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다. 먼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생각했다. 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지만 음악을 생업으로 평생 해나가기엔 급진적 부담이 크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내 미래에 대한 뚜렷한 길이 보이지 않는 날이 계속됐다.

어느 날 유독 답답함을 느껴 느닷없이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용산역 쪽으로 향했다. 동작대교를 건너 용산역에 도착한 순간 듣고 있던 잔잔한 노래와 바깥 풍경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졌다. 버스에서 내리자 고층 건물이 즐비했고 문득 이런 곳에서 직장을 다니고 싶단 생각을 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언론사들이 많이 있었고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인 시청역 근처에도 수많은 언론사가 있던 사실을 떠올렸다. 이런 단순한 생각이 "기자가 돼 반드시 이런 멋진 도시에서 직장을 언젠가"는 결심으로 이어졌다. 단순한 결심에서 시작된 기자란 꿈은 참으로 역설적이었다. 이전에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절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직업이 바로 기자였기 때문이다. 이 다짐 이후로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기 시작했다. 전부터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안들이 언론을 통해 사회에 알려지고 논의되는 등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이 언론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단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사무실에 틀어박혀 일을 하는 게 적성에 맞지 않는 내게 기자란 직업은 취재와 같은 외부 활동이 많아 잘 맞을 것이라 느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우선 기자란 직업을 잘 이해하기 위해 학내언론부터 경험해보자겠다고 생각했다. 이에 이번 해 1학기 외대학보 수습기자에 지원해 합격했다.

외대학보에선 △기획△사회△인물△학술 기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작성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누군가 내게 어떤 기사를 쓰는 게 가장 흥미로운가 묻는다면 난 주저 없이 '기획' 기사라 답할 것이다. 외대학보의 기획 기사는 교내 사안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며 다양한 문제의식을 다룬다. 이를 위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교내 기관에 직접 입장을 묻는 과정을 거친다. 시의성 높고 균형 잡힌 기사를 작성하며 얻는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외대학보에 들어온 후로 내 삶은 외대학보로 가득 차 있다. 매일 어떤 주제가 좋은 기사거리가 될지 생각하고 학보가 발행되기 직전까지 혹시 기사에 오타나 잘못된 정보가 있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한다. 이렇게 한 분야에 몰두할 수 있단 사실이 기쁘다. 학보의 발행과 동시에 내 자신이 발전하는 것도 느낄 수 있어 더욱 보람찬 기분을 느끼기도 한다. 기사를 마감하는 날엔 모두가 밤을 새며 한 호를 완성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한다. 그러나 내겐 그 시간이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이는 양질의 기사에 대한 사명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함께 학보 발행이란 하나의 목표를 위해 기사 작성에 몰두한다. 그 사이에서 오고 가는 따뜻한 대화가 학보사에서의 시간을 소중하게 만든다. 앞으로 남은 학보 발행 일정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고 싶다.



조수빈 기자

1072호 학보를 읽고

안전과 기회가 보장되는 대학을 위해

11월이 도래하고 가을도 종반에 이르며 날씨가 제법 추워지고 있다. 이번 외대학보 1072호에선 △원룸촌에 마련한 화재의 위험성△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위한 제인△외국인 유학생의 급속한 유치와 그에 따른 문제△충간소음의 폐단 등 시의성 있는 의제가 다뤄졌다.

3면에서 제시된 대학이 원룸촌의 화재 위험 문제는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심각성이 높다. 또한 상당수의 대학생이 자취를 한단 점을 고려할 때 우린 이 문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된다. 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러한 화재의 위험성은 △개인의 안전인식 부재△소방시설 설치 의무 미준수△원룸촌 도로의 협착함에 기인한다. 안전 거리 확보를 위한 도로규정의 재정비는 건축업체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다가올 수 있기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문어발식 콘텐츠 사용을 지양하는 등 개인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노력과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청년의 발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4면에선 우리학교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이 심도 있게 고찰됐다. 해외의 언어와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본래의 취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선발 전형 다변화단 선발 정원 증원을 통한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선발 기준을 투명하게 공시해 학생들이 선발 결과를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면에선 외국인 유학생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외국인을 차별 없이 수용하는 학생 사회가 되어 한단 점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현

송성윤(서양어 · 독일어 21)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072호 학보를 읽고

마치 가을날의 햇살처럼

어느덧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고 알뜰달뜰한 낙엽으로 물든 캠퍼스에 따스하면서도 쌀쌀한 기운이 밀려온다. 지난 외대학보 1072호에선 △국제교류 프로그램△소외받는 외국인 유학생△충간소음 문제△화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대학생 주거공간 등 교내·외에서 대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소재로 한 기획 및 심층 기사들이 주를 이뤘다.

3면의 대학이 원룸촌 문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기사 속 문제로 제시된 소방차가 들어오기 힘든 좁고 가파른 골목길은 낯설지가 않다. 화재는 순식간에 일어 나기에 대피 동선 확보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좁은 골목 구조로 인해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또한 해당 기사에선 원룸 구조를 파악해 발화점이 출입구에 있어 대피하기가 어렵단 점이 지적됐다. 이 기사를 통해 일상 속 화재 발생 위험을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현재 우리학교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과 같은 안전교육을 지도하고 있지만 화재 발생 예방 및 대피를 위한 안전교육과 특강을 진행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4면에선 우리학교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허점을 여과 없이 지적했다. 기사를 읽으며 우리학교 국제교류 프로그램 선발이 일정한 규칙 없이 이뤄지고 있던 느낌을 받았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선발에 대한 △학교△학과△학생 간에 일관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5면에선 우리학교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제시했다. 우리학교는 매해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을 무분별하게 유치하기에 앞서 유학생 지원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김수연 (국제지역 · 중앙아시아 16)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재 이들이 우리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구비되지 않았으며 이들에 대한 관련 복지나 지원 또한 미흡한단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부족한 우리학교의 재정을 충당해야 한단 필요성을 이해하지만 대학의 본질은 이윤 추구가 아닌 사안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외부 수입원 확충을 통해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대학의 재정 건전성이 제고돼야 할 것이다.

7면에선 우리가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는 충간소음의 폐단과 그 해법이 논의됐다. 충간소음으로 인한 2차 보복 범죄의 빈도가 증가하며 충간소음의 사회적 심각성은 이전에 비해 더 뚜렷이 조명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건물 내 소음 기준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처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사후적 구제를 위해선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충간소음 피해 정도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외대학보가 언제나 학우들에게 널리 읽혀 우리 학교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길 희망한다.

충간소음 문제를 다룬 7면의 기사를 통해 충간소음이 비단 일반 가정집만의 문제가 아닌 사안을 되새길 수 있었다. 특히 기숙사 및 자취공간의 충간소음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학교 학생의 인식을 알 수 있어 좋았다. 충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없는 실정이지만 적어도 기숙사 내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12면을 통해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의 세계민속문화축전(이하 세민전)과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의 퀴아트리 아 축제의 열기를 엿볼 수 있었다. 설캠은 코로나19로 인해 스킨댄스-19로 인해 대면 축제의 공백기가 컸으나 이전과 달리 플라마켓 참여 부스가 많아진 점이 긍정적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주최 측의 늦은 공지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점은 개선돼야 할 것이다. 또한 세민전 참가 학과가 줄었던 것을 보고 비대면으로 이뤄진 3년 간의 학교생활로 인해 선후배 간에 이어져야 할 각 학과만의 고유 문화에 큰 타격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포스트코로나(Post-Corona) 시대에 들어선 양 캠퍼스의 대학 축제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외대학보가 언제나 언론의 기능을 지켜주는 것이 마치 가을날의 햇살 같다. 독자에게 여러 시사점을 통해 온화하면서도 때로는 차가운 화두를 던지기 때문이다. 10면과 11면의 열린공간에선 기자들의 진솔함이 묻어났다. 그중 기사는 결코 나 혼자 쓴 게 아니다란 문장을 한참 들여다 봤다. 뒷담하는 기자의 내용이 영화 칼럼의 제목 다른 사람의 도움이 나를 완성시킨다와 어우러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외대학보가 앞으로도 학내 구성원 간의 소통 창구로 서술직하고 담백한 가치를 드러내 주길 소망한다.



빈의자

국·부장 고정칼럼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는 사람이 막을 수 있다

인재(人災)란 자연 재해와 같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재해가 아닌 사람들로 인해 빚어진 재해를 뜻한다. 자연 재해와 달리 원인만 제대로 통제된다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그랬기에 이번 이태원 참사는 더욱 아쉽고 슬픈 재해였다. 사건의 원인부터 결과까지 전부 인간에 의해 빚어진 참사였기 때문이다. 길거리 통제와 질서 유지가 조금만 더 원활하게 이뤄졌더라면 피해를 충분히 막거나 줄일 수 있었던 사고라고 생각되기에 아쉬움이 배가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전국이 슬픔에 잠긴 한 주였다. 이번 외대학보 제1073호의 마감 작업은 불행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들을 애도하는 마음을 품은 채 진행됐다.

이번 호엔 학교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들 중 사람이 신경 쓰다 면 해결될 수 있는 요소들에 집중해 해당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사들을 실었다. 학교 내의 와이파이에는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가 혼재하는 현재 우리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크게 의존하는 기술 중 하나다. 와이파이 제공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강의와 시험을 비대면으로 하는 학생들이 큰 불편함을 겪게 된다. 이러한 와이파이 기술도 사람들이 개발하고 제공하는 문제이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학생 요구안의 중점 내용인 △계절학기 등록금△성적평가방식△학부 수업 시작 시간 변동의 문제도 그렇다. 사람이 결정하는 문제이기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 발생을 사전

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학교 측과 학생들 간에 해당 사안에 대한 원만한 사전 합의가 이뤄질 기대한다.

이태원 참사는 입에 함부로 담기 어려울 만큼 슬픈 사고였다. 이번 참사는 사람들이 서로 밀리고 넘어져 발생한 압력으로 인해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한 그야말로 인재 그 자체였다. 자연 재해가 아니었기에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존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찰△서울특별시△용산구△청△행정안전부 등 이를 사전 통제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던 기관들이 이번 참사를 마치 천재(天災)가 발생한 것처럼 어쩔 수 없단 듯 대하는 태도를 보고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물론 아무리 인재라 하더라도 세상에 일어나는 사고를 전부 사전에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특정 사고에 통제 가능한 요소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마저 포기하면 안 된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였단 이유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건 쉽지 않다. 이번 일을 계기로 추후 대규모의 인원이 운집하는 일이 있을 때 우려되는 요소를 예측하고 대비해 사고 발생과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게 되길 바란다. 이러한 대규모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다. 이태원 참사 사망자들의 명복을 빈다.

장래산 편집장 03raesan@hufs.ac.kr



사설

10·29 참사와 애도의 방식

어떤 사건이나 재난은 그 사회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고 서늘하게 자각하게 한다. 그리고 그 사건을 규정짓는 방식은 향후 그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가늠하게 한다. 그렇기에 벌어진 일에 대해 정확히 규정하고 진단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10월 29일 저녁, 헬러원을 즐기러 나간 이태원 거리에서 156명(대부분이 젊은이들이었다)이 압사당해 죽었다. 우리는 이에 대해 1주일의 국가애도기간을 정하여 그 애통한 죽음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156명의 죽음을 두고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고 하고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고 굳이 선을 긋는 것은 왜일까? 국가 애도기간까지 정해 놓고 말이다. 더구나 그 애도기간에 시민사회단체들을 사찰하고 감시하라고 명하는 행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대상자로 보며 감시하는 것이 목적인가.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일은 단순한 '사고'나 '사건'이 아니다. '사고'는 뜻밖 에 일어난 불행한 일,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나쁜 일을 뜻하고 '사건'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 받을 만한 뜻밖의 일, 수사 기소, 재판 등 사법 작용의 대상 이 되는 일을 뜻한다. '사고'이나 '사건'이 개별성을 띠다면, '참사'는 비참하고 끔찍 한 일을 두루 일컫는 말이다. 그 점에서 이번에 이태원에서 발생한 그 기막힌 죽음 은 사고이자 사건이면서 명백히 비극적인 참사다.

그 가엾은 죽음을 두고 '희생자'라는 말을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 평소처럼, 예년 처럼, 적절한 행정력이 동원되어 거리에서 시민들의 걸음을 조절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죽음이다. 그날 저녁 6시 37분부터 수십 번 있었던 신고들, "압사당할 것 같 아요"라는 신호에 기민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죽 음이다. 우리나라는 시민의식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수십만 혹은 수백만 인파가 모여도 평화롭게 다치는 사람 없이 행사가 진행된 과거의 수많은 사례들은 우리 국 민의 선진적인 시민의식을 잘 보여준다. 헬러원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이태원이라 는 공간, 다국적 문화가 별 이질성 없이 섞이는 그 골목에 모이는 것도 처음이 아니 었다.

언제부터가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늘어가기 힘든 나라가 되었다. 젊 은이들이 일하다가 끼여 죽고, 떨어져 죽고, 과로로 죽고, 희망이 없어 죽는다. 한 해 828명, 882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는 나라. 그런데 이제는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걷다가 무더기로 죽은 기이한 나라가 되었다. 행사 주체가 없기 때문에 책임 주체가 없다는 말은 국가와 공권력, 행정력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인하는 말이다. 축제를 즐기 위해 자연스럽게 거리에 나간 사람들이었기에 더욱 국가의 행정과 안전장 치가 작동했어야 한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다. 156명의 죽음은 일선 경찰에 책 임을 지울 일이 아니라 경찰조직을 움직이는 행정수반에 책임이 있는 막중하고 비 극적인 참사다.

이 참혹한 죽음 앞에서 국가는 공적인 애도기간을 두었다. 국가가 정한 애도기간 에 우리는 이렇듯 사진도 위패도 없는 분향소에서 절을 했다. 이 죽음이 어떤 방식 으로 거두어질지 아직 가능하기 힘들지만, 기자회견장에서 농담을 하는 총리나 책 임보다는 회피로 일관하는 행정부 수반의 행위와 말을 보면 죽음을 서둘러 봉하려 는 것은 아닌지, 이번 공적 애도기간도 그를 위한 장치는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 름을 가진 애도가 희생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었으나 그 또한 세월호 이후 희생자들에게 과격하게 가해진 조롱과 혐오가 더 큰 문제지 희생자들을 지울 이유는 없다. 이렇듯 위패도 없이 A씨, B씨, C씨, D씨 등 기호로 젊은이들을 떠나보 내며 애도의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애도는 죽은 이들이 살았던 흔적을 지우는 일이 아니다. 그들의 삶을 경건하게 기 리는 일이다. 한 사람은 하나의 우주다. 한 생명이 이 땅에 깃들며 사람으로 자란 과 정, 그 꿈과 희망과 정성, 가능성을 생각해 보라. 한 목숨, 하나의 우주가 꺼지면 그와 연결된 수십 개의 우주도 함께 꺼진다. 이 죽음은 안전을 중시하지 않고 효율만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무서운 전조처럼 느껴진다. 기후위기가 몰고 올 재난이나 전 쟁 가능성도 한층 높아진 지금, 안전보다는 효율을 내세우는 정책은 매우 위험하다. 우리는 일터에서, 거리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참사 이후, 회피가 아닌 책임 있는 진단과 조사가 시작될 때, 그때 우리의 애도도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정은귀(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한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3raesan@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정은귀
 편집장 장래산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외대만평



김유빈 (중국·중언문 19)

십자말풀이

②						④
②						④
						④
			⑤			
①						③
①						
			③			

- 가로**
- 이처럼 많은 인원이 ○○○에 몰렸지만 당시 거리는 별다른 통제 없이 매우 혼잡했으며 사람들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했다. (8면 참조)
 - 지난 7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이 공개된 후 '○○·○○○○ 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어 대학에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교부금 개편안이 회두에 올랐다. (7면 참조)
 - 서울○○○○은 △기후환경스도시기반 시설 △스마트시티(Smart City)△재난안전관리 등의 연구를 수행합니다. (12면 참조)
 - 설렘 총학은 15일부터 23일까지 총 9일간 설렘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2 학생○○○ 설문조사' (이하 요구안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4면 참조)
 - 정부가 제시한 ○○○ 개편안의 핵심은 초·중·고등학교에 주던 교부금 중 3조 6천억을 대학에 나눠준 것이다. (7면 참조)

- 세로**
- 2010년대부터 우리학교는 학내 구성원들에게 캠퍼스 내 ○○○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3면 참조)
 - 제조업 기반이 비교적 약했던 강원도는 관광 수익과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 유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9면 참조)
 - 학교 와이파이를 담당하는 설렘의 ○○○○ IT인프라팀 (이하 IT인프라팀)은 최근 설렘 스마트도서관 1층의 와이파이 장비를 대용량 장비로 교체해 시험 중에 있다. (3면 참조)
 - 대학을 대상으로 한 ○○○은 교육용으로 분류돼 일반 건물에 공급되는 전력비보다 25%가량 저렴하고 누진세 대상에 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5면 참조)
 - 지난달 28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에서 제10회 국제통상학과(이하 국통) 홀커밍데이 행사가 개최됐다. (1면 참조)

*피름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칸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을 통해 서울시를 풍요롭게 만드는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을 만나다

Seoul Institute of Technology

1991년 우리학교를 입학해 1996년 졸업한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이하 임 원장)은 △국가철도공단 정책집행△국토교통환경 분야 정책연구△국회 정책감사△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정책 입안 이력을 가진 도시행정학 박사다. 현재 서울기술연구원장과 서울싱크탱크협의회(SeTTA)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첨단과학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도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과학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 문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해 서울시 운영에 적용하는 임 원장을 만나보자.



Q1. 우리학교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외국어를 전공으로 공부하고 싶어 우리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우리학교는 외국어 교육으로는 최고의 자리에 위치해 있고, 평소에 지역학 공부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외국어 교육 체계를 지닌 학교에서 다양한 지역의 언어 및 지역학을 배우고 싶단 생각이 컸어요.

Q2. 대학 시절 경험했던 인상 깊은 활동이 있나요?

외대학보에서 2년 간 기자로 활동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교내 사안에 문제의식을 갖고 동료 기자들과 밤낮없이 기사를 쓰는 업무가 적성에 잘 맞았죠. 특히 학교 예산과 등록금 문제에 관심이 많아 학교 재정 관련 기사를 많이 썼어요. 외대학보가 제 대학 생활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보사 생활에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다른 것들을 생각할 여유도 없었을 만큼 외대학보에 대한 애착이 매우 컸죠. 외대학보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대인관계△지식은 졸업 후 사회 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Q3. 도시행정 전문가의 길로 나아가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졸업 직후 국가철도공단에서 근무하며 △기계·전기·토목·통신 등 기술△공무원 내부 조직문화△행정 관행을 이해하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장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며 정책 전반에 대한 관리와 정책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했죠. 이런 경험을 통해 종합행정의 성격을 띠고 있는 서울시정을 깊게 이해할 수 있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도시행정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도시행정에 관심을 갖고 이를 바라보니 도시는 중요한 문제들과 끊임없이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해답을 찾고 최적화할 수 있는 도시행정 분야의 전문가가 될까 싶단 걸 깨닫고 본격적으로 도시행정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됐죠.

Q4. 과거 서울시 시장실 정책 비서관을 역임하며 서울시 행정상담전문 클러스터인 '120다산콜센터'와 '장기전세 주택' 등의 정책을 입안하셨습니다. 정책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책 제안 시 유연하지 못한 조직문화를 깨고 창의적인 정책을 고안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일만 수행할 뿐 시키지 않은 업무는 하지 않는 '복지부동'이란 독특한 조직문화가 있죠. 시민이 궁금한 점을 물어도 대답을 피하며 다른 부서에 떠넘기는 소위 '전화돌리기'를 하는 공무원들을 보고 행정 민원을 통합 처리하는 '120 다산콜센터'를 제안했어요. '장기전세 주택'은 제가 무주택 서울시민으로 살며 느낀 불편함에서 착안해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가장 좋은 정책은 직접 보고 느낀 바에 의해 탄생한다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Q5. 도시정책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제 제안으로 실행된 정책을 다른 사람이 기억하고 인정해줄 때 가장 뿌듯합니다. '120 다산콜센터'의 경우 제가 처음 제안했을 때 다른 공무원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책이 실행된 후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더불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져 이 정책은 행정 혁신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더불어 이 정책으로 인해 갑축된 인원이 다른 업무에 배치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부가적으로 잇따랐죠. 하나의 정책을 제안한 후 실행돼 성과를 내기까지 수 많은 갈등과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쉽게 실행돼 성과를 내는 정책은 단 하나도 없죠.

Q6. 서울기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 분야 및 대표적인 연구성과가 궁금합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기후환경△도시기반 시설△스마트 시티(Smart City)△재난안전관리 등의 연구를 수행합니다. 현재 이러한 영역들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접목해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죠. 특히 이번 해엔 서울시 행정 개선에 필요한 주요 안건을 상시 분석하고 현안에 신속 대응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난 8월 서울시 침수 피해로 인해 풍수 관리 체계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시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8가지의 기술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반지하 가구 소멸 전까지 거주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침수 취약가구를 위한 방안 등 8가지 방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제공했죠.

이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을 자동으로 검색하고 삭제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했고 '하천범람 위험 조기예측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어요. 특히 하천범람 위험 조기예측 시스템은 홍수 대응 속도를 높여 도림천 통합관리 지점을 구축했던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Q7. 서울기술연구원장으로서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이 우리의 삶을 몰라보게 변화시키고 있는 시대인 만큼 서울기술연구원은 기술을 통해 서울시민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기술연구원장으로서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선진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에 힘을 더 쏟을 계획이에요. 또한 앞으로도 서울시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동향을 가장 빠르게 분석하고 시정에 접목해 서울시 주요 정책을 주도할 것입니다.

Q8. 일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원장님 삶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중용'입니다. 중용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아 뒤흔뒤흔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 어휘예요. 오랜기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업무

에 대한 과몰입으로 인해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등 불편한 경우가 종종 발생했죠. 이에 인간관계와 업무 간의 균형을 갖추는 의미로 중용을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있어요.

둘째는 '한량'입니다. 한량은 끝이 없단 뜻과 돈을 잘 쓰고 잘 노는 사람이란 두 가지 의미를 지니죠. 전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제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추구합니다. 후자는 일에만 집중해 스스로를 보살피는 것을 간과하지 말란 의미로 지향하고 있어요.

Q9. 미래의 행정 전문가를 꿈꾸는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사회 현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지니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정책을 내기 위해선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하죠. 따라서 꾸준히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보며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스스로 생각해보는 걸 추천해요. 또한 후배들에게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전 첫 직장부터 지금까지 약 5년에 한 번씩 직장을 옮겼는데 계획에 따라 이직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앞선 경력의 다음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디딤돌이 돼 끊임 없이 발전할 수 있었죠. 그러니 여러분도 외부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과감하게 도전하길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추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기전세주택: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전세주택.

지명원 기자 04jimw@hufs.ac.kr

